

“광전연 분리 명분없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 출연기관·직원 등 반발...이사회 진통 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을 분리 운영키로 합의하면서 광전연 내부 반발과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5일 회동, 광전연 분리운영에 합의(본보 8일자 1면)한 것으로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분리안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시·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광전연 연구위원과 직원 등은 8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 1가 연구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도의 분리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했던 오재일 광전연 원장이 경과를 설명했으며 직원들은 분리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중대 사안인 분리운영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도의 독자적인 연구원 운영에 따른 ▲상생발전 정신 훼손 ▲막대한 운영비 추가 부담 등의 폐단이 예견되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전연 연구위원과 직원들은 조만간 연구원 노조 차원의 입장을 정해 발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발전목적으로 설립된 광전연 출범 당시 기금을 출연했던 기관들은 시·도가 일방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모로 여건에서 지역발전의 싹크랭크로 육성해달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도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운영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은 12억원의 기금을 낸 광주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8일 “연구원의 특화는 수긍하지만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리운영에 대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리운영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연구원을 시·도가 공동 운영하더라도 역량을 강화하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통합 연구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전남 행정 특성에 따른 세부 전문인력 확충 ▲연구 추진 조직개편 ▲소재지를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연구원과 시·도 연계 강화 등이 꼽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눈 쌓인 장독대

서설을 머리에 뒤집어 쓴 수백개 장독이 사이줄게 줄지어 서있다. 담양군 창평면 고려전통식품 장독의 장맛이 한겨울 추위를 함께 새록새록 깊어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전·의결 대체복무 폐지

정부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해 6만9천여명에 이르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 확대 시행 방안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소시통은 8일 “정부는 병역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한 뒤 오는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옛 도청→亞 평화전당’ 된다

광주시, 국비 220억 들여 리모델링

1980년 5·18민중항쟁의 중심지이자 상징인 옛 전남도청 건물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과 정신을 아우르는 ‘아시아 평화의 전당’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최근 전남도청 본관과 민원실에 총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광주시는 최근 전남도청 본관과 민원실에 총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시는 외관 및 내부 상태가 양호한 전남도청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아시아의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최고의 건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문광부가 건립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건물로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동안 화계와 5·18관련단체들은 전남도청 건물을 5·18박물관 등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특히 시의 ‘아시아 평화의 전당’ 사업은 문광부의 문화전당 건립사업 방향과 일치해 문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문화전당 완공이 2010년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전남도청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2008년까지 조기 완공해 문화전당 건립 전이라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홍보를 시청각 매체로 집중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젊은 세대에게 5·18을 알리기 위해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18 영화 시나리오와 제작사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에는 모두 96편의 시나리오와 제작사 2개사가 응모했다. 기념재단 측은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인 오는 2010년까지 영화를 완성해 개봉할 예정이다. 기념재단은 또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네시스’와 최근 계약을 맺고 오는 4월 5·18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포일학원 창학 50년 역사상 초흥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생원로 100 (062-950-1114) ▶ T. (062)950-1111
새로 태어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생원로 101 (062-950-1) ▶ T. (062) 360-3000

노대통령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로”

“경솔한 발언” 비난 고조

작년 정상회담서 제의 피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은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일간 현안들을 대국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게 어떨냐고 비공식적

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며 “이후로 한일간에 동해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일본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동해를 한국은 ‘East Sea’(동해)로, 일본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부르는 등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양국 우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갈등해소를 위한 접점 모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돌출적인’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동해 명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동해 이름 찾기 노력이 지속돼온 현실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유기준 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을 즉흥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동해 표기가 옳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속판매 김동원